

치위생과 학생의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정희^{1*}, 송혜정¹, 이보영²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²강진호 치과의원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eong-Hee Park^{1*}, Hye-Jeong Song¹, Bo-Young Lee²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²Dr. Kang's Dental Clinic

요 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및 임상실습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남과 울산 소재 3개 대학의 치위생과 3학년 학생 381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학과 선택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전', 구강건강이 '건강하다', 성격은 '외향적', 가정 분위기는 '화목하다'에서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치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에서 높았고, 전공만족도는 학과 선택시기와 구강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 = .165, p = .000$)과 임상실습만족도($\beta = .630, p = .000$)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의 윤리의식 수준과 자아존중감, 임상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만족, 전공만족도, 치위생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hird grade students in 3 dental hygiene colleges in Gyeongnam and Ulsa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Self-esteem showed high score in 'Before senior high school student' of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in 'Good' of oral health, in 'Outgoing' of personality and in 'Good' of family atmosphere. 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howed high score in 'Have' of part-time job experience in dental clinic. In case of major satisfaction,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means with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and oral health. 3.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major satisfaction are self-esteem($\beta = .165, p = .000$) and clinical satisfaction($\beta = .630, p = .000$). It is important that making the curriculum to improve ethical propensity and self-esteem, clinical satisfac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Dental hygienics

1. 서론

치위생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고도의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양

성해 나가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시절에 확립된 윤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은 임상실습 현장이나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Corresponding Author : Jeong-Hee Park(jhpark@masan.ac.kr)

Received March 30,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June 4, 2018

Published June 28, 2018

수 있다[1].

Schlenker와 Forsyth[2]는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윤리적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Forsyth[3]는 이상주의(idealism)와 상대주의(relativism)개념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상주의 성향은 사람들이 윤리적 판단 시 결과보다는 행동 자체에 의해 판단하려는 성향이고, 상대주의 성향은 보편적인 윤리법칙보다는 상황에 의해 윤리성을 판단하려는 성향이다[4]. 올바른 윤리성향의 확립은 의료현장에서 타전문직과 협력하며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치과위생사가 가져야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5].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윤리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는 졸업 후 이들이 행하게 될 전문적 치위생행위와 직결되고, 바람직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 이에 치과의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주체이므로 업무수행과정에 윤리적성향의 의식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4].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이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고 설명하며 예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주요변인 중 하나로[6] 건강한 정신을 위한 에너지의 기반이 되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7].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즉,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적 해석을 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9],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더욱 확대 해석하여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대인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10].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삶의 목표를 뚜렷이 하고 발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홍[11]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가정보다는 사회가, 사회보다는 학교가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오[12]는 임상실습 경험은 학과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고, 최[13]는 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실습 후 취업의지가 높고 더 나아가 직업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

신이 소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으로 진로탐색행동과 유익한 상관을 가지며[14],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의 수업과 학교생활 및 교과과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통해 많은 결과를 이룬다[15].

자아존중감과 윤리적 성향에 대한 연구로는 자아존중감과 윤리적 성향과의 관련성[7,16]이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17,18],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이 환자 의료정보보호 인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19].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윤리의식 수준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을 제고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5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울산, 경상남도 일부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분명한 5부를 제외하고 38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본 산출근거는 G*power 3.1.9 for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alpha) .05, 검정력(power) .95, 효과크기(effect size) 15로 하였을 때 회귀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213개로 산출되어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윤리성향과 자아존중감은 김[19]의 설문지를 참고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는 김과 김[20]의 설문지, 전공만족도는 송[21]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인의 연구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에서 7문항, 윤리성향은 총 20문항으로서 이상주의 성향 10문항, 상대주의 성향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은 역 코딩을 하였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는 총 20문항으로서 실습내용 4

문항, 실습지도 3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환경 4문항, 실습평가 3문항, 대인관계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교과만족 4문항, 수업만족 3문항, 관계만족 3문항, 인식만족 5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성향과 자아존중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윤리성향은 0.837, 자아존중감은 0.894, 임상실습 만족도는 0.930, 전공만족도는 0.943으로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2.3 통계분석

자료는 SPSS Win 20.0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on's test를 이용하였다.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

실습 만족이 전공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Person's correlation을 하였으며,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2세가 81.9%로 많았고, 성적은 3.0 미만이 37.5%로 많았다. 치위생과를 선택한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후가 77.2%로 많았으며, 치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없다가 73.8%로 많았고, 있다는 26.2%이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가 58.5%로 많았고, 다음은 보통이다 37.0%, 불량하다 4.5%순이었다. 성격은 외향적이다가 53.0%로 많았고, 내향적이다는 47.0%이었으며,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다가 92.4%로 많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Age	under 21(years of age)	40	10.5
	22	312	81.9
	over 23	29	7.6
Academic records	under 3.0	143	37.5
	3.0~3.4	121	31.8
	over 3.5	117	30.7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before high school senior	87	22.8
	After high school senior	294	77.2
Part-time job experience in dental clinic	not have	281	73.8
	have	100	26.2
Oral health	bad	17	4.5
	normal	141	37.0
	good	223	58.5
Personality	withdrawn	179	47.0
	outgoing	202	53.0
Family atmosphere	not good	29	7.6
	good	352	92.4
Total		381	100.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은 Table 2와 같다. 이상주의 성향은 성적이 3.5이상에서 높았고(4.04±0.48), 구

강건강상태에서는 불량하다(4.11±0.47)에서 높게 나타났다(F=5.620, p=.000). 상대주의 성향은 성적에서 3.0미만자(3.73±0.44)가 높게 나타났다(F=3.251, p=.040).

Table 2. Ethical propensity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Idealism	Relativism	Total
		M±SD	M±SD	M±SD
Age	under 21(years of age)	3.97±0.54	3.70±0.54	3.83±0.46
	22	3.95±0.49	3.67±0.43	3.81±0.38
	over 23	3.88±0.51	3.56±0.46	3.73±0.39
	t or F (p)	0.246 (.782)	0.877 (.417)	0.727 (.484)
Academic records	under 3.0	3.91±0.49 ^a	3.73±0.44 ^b	3.82±0.41
	3.0~3.4	3.90±0.51 ^a	3.59±0.45 ^a	3.74±0.40
	over 3.5	4.04±0.48 ^b	3.67±0.43 ^{ab}	3.85±0.34
	t or F (p)	2.901 (.056)	3.251 (.040)	2.189 (.113)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before high school senior	4.00±0.47	3.68±0.49	3.84±0.40
	after high school senior	3.93±0.50	3.66±0.43	3.80±0.38
	t or F (p)	1.058 (.291)	0.403 (.687)	0.905 (.366)
Part-time job experience in dental clinic	not have	3.98±0.48	3.67±0.46	3.82±0.38
	have	3.87±0.53	3.68±0.43	3.77±0.40
	t or F (p)	1.836 (.067)	-0.256 (.798)	1.018 (.309)
Oral health	bad	4.11±0.47 ^b	3.80±0.42	3.96±0.36 ^b
	normal	3.84±0.48 ^a	3.65±0.40	3.75±0.36 ^a
	good	4.00±0.50 ^{ab}	3.67±0.48	3.84±0.40 ^{ab}
	t or F (p)	5.620 (.004)	0.881 (.415)	3.633 (.027)
Personality	withdrawn	3.98±0.49	3.68±0.46	3.83±0.40
	outgoing	3.92±0.50	3.66±0.43	3.79±0.38
	t or F (p)	1.219 (.223)	0.532 (.595)	1.082 (.280)
Family atmosphere	not good	3.92±0.47	3.73±0.39	3.82±0.34
	good	3.95±0.50	3.66±0.45	3.81±0.39
	t or F (p)	-0.379 (.705)	0.725 (.469)	0.175 (.861)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on's multiple comparisons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도 및 전공만족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 및 전공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치위생과를 선택한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전(3.62±0.62)이 3학년 이후(3.44±0.64)보다 높았으며($t=2.296, p=.022$), 구강건강 상태는 건강하다(3.62±0.63)에서 높았다($F=14.424, p=.000$). 성격은 외향적이다(3.62±0.64)가 내향적이다(3.31±0.60)보다 높았으며($t=-4.842, p=.000$), 가정분위기는 화목하다(3.50±0.63)가 화목하지 못하다(3.24±0.74)보다 높게 나타났다($t=-2.041, p=.042$). 임상실습 만족도는 치과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3.75±0.54) 경우에서 없는(3.59±0.55) 경우 보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t=-2.498, p=.013$). 전공만족도에서는 치위생과를 선택한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전(3.63±0.66)이 3학년 이후(3.42±0.58)보다 높았으며($t=2.766, p=.006$), 구강건강상태가 건강하다(3.56±0.63)에서 높게 나타났다($F=5.414, p=.005$).

3.4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과 전공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만족과 전공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이상주의 성향은 자아존중감($r=.195, p=.000$), 임상실습 만족($r=.284, p=.000$),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서 교과만족($r=.244, p=.000$) 수업만족($r=.235, p=.000$), 관계만족($r=.303, p=.000$), 인식만족($r=.244,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상대주의 성향은 임상실습 만족($r=.144, p=.005$), 수업만족($r=.136, p=.008$), 관계만족($r=.149, p=.004$), 인식만족($r=.141, p=.006$)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 만족($r=.266, p=.000$), 교과만족($r=.368, p=.000$) 수업만족($r=.332, p=.000$), 관계만족($r=.277, p=.000$), 인식만족($r=.297, p=.000$)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만족은 교과만족($r=.640, p=.000$), 수업만족($r=.611, p=.000$), 관계만족($r=.606, p=.000$), 인식만족($r=.601, p=.000$)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Self-esteem, clinical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Self-esteem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M±SD	M±SD	M±SD
Age	under 21(years of age)	3.36±0.75	3.55±0.66	3.36±0.74
	22	3.50±0.63	3.64±0.54	3.49±0.60
	over 23	3.37±0.58	3.60±0.56	3.39±0.48
	t or F (p)	1.300 (.274)	0.438 (.645)	0.938 (.392)
Academic records	under 3.0	3.42±0.63	3.62±0.55	3.42±0.60
	3.0~3.4	3.46±0.59	3.61±0.52	3.44±0.56
	over 3.5	3.56±0.69	3.67±0.58	3.56±0.64
	t or F (p)	1.496 (.225)	0.389 (.678)	2.078 (.127)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before high school senior	3.62±0.62	3.70±0.64	3.63±0.66
	after high school senior	3.44±0.64	3.61±0.52	3.42±0.58
	t or F (p)	2.296 (.022)	1.375 (.170)	2.766 (.006)
Part-time job experience in dental clinic	not have	3.46±0.66	3.59±0.55	3.44±0.59
	have	3.53±0.58	3.75±0.54	3.56±0.63
	t or F (p)	-0.852 (.395)	-2.498 (.013)	-1.653 (.099)
Oral health	bad	3.23±0.68 ^a	3.44±0.53	3.33±0.52 ^a
	normal	3.28±0.59 ^a	3.58±0.49	3.35±0.54 ^a
	good	3.62±0.63 ^b	3.68±0.58	3.56±0.63 ^a
	t or F (p)	14.424 (.000)	2.398 (.092)	5.414 (.005)
Personality	withdrawn	3.31±0.60	3.60±0.48	3.43±0.52
	outgoing	3.62±0.64	3.65±0.61	3.51±0.67
	t or F (p)	-4.842 (.000)	-0.876 (.382)	-1.294 (.196)
Family atmosphere	not good	3.24±0.74	3.60±0.46	3.43±0.52
	good	3.50±0.63	3.6±0.356	3.47±0.61
	t or F (p)	-2.041 (.042)	-0.326 (.744)	-0.374 (.709)

^{a,b}The same characters are not significant by Duncon's multiple comparisons

Table 4. The correlation of major satisfaction with ethical propensity, self-esteem and clinical satisfaction

Characteristic		Idealism	Relativism	Self-esteem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Class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Profile satisfaction
Idealism		1							
Relativism		.360**	1						
Self-esteem		.195**	.043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84**	.144**	.266**	1				
Major satisfaction	Curriculum satisfaction	.244**	.093**	.368**	.640**	1			
	Class satisfaction	.235**	.136**	.332**	.611**	.765**	1		
	Relationship satisfaction	.303**	.149**	.277**	.606**	.631**	.707**	1	
	Profile satisfaction	.244**	.141**	.297**	.601**	.705**	.676**	.625**	1

*p < 0.05, **p < 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5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잔차의 분포 확인에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8~0.96으로 0.1 이상 나왔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1.03~1.27으로 나타나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61.908, p=.000), 모형의 설명력은 53%이었다. 전공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자아존중감($\beta=.165$, p=.000)과 임상실습만족도($\beta=.630$, p=.000)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5. The Factors influence on major satisfaction

Characteristic	B	S.E	β	t	p
(Constant)	-.056	.714		-.078	.938
Age	-.007	.030	-.008	-.233	.816
Academic records	.031	.022	.051	1.415	.158
Oral health	.035	.030	.043	1.148	.252
Idealism	.073	.048	.061	1.525	.128
Relativism	.040	.051	.030	.785	.433
Self-esteem	.156	.036	.165	4.301	.00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691	.041	.630	16.648	.000

F=61.908, Adjusted R²=0.529

4. 고찰 및 결론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치과위생사로서 취업 후에도 높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로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22] 대학 시기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이 전공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성향에서 하위요인인 이상주의는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등[4]의 연구에서는 성격, 가정분위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고 상대주의는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 등[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과선택 시기, 구강건강, 성격, 가정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성격이 외향적이고 가정분위기가 화목할수록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높고 사회위축감과 공격성이 낮아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며 박 등[18]은 성격, 김 등[23]은 가정분위기에 따라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지[24]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구강건강이 건강할수록, 실습횟수가 많을수록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내적 평가도구로써[25]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인간관계를 포함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18] 향후 전문 치과위생사로서의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치과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한 등[26]의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의 연구에서 실습경험 횟수에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임상실습은 실무와 현장 적응능력, 실질적인 의료기술의 습득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27],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27,28] 임상실습이 최적의 학습현장이 될 수 있도록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는 학과선택 시기, 구강건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 등[29]의 연구에서는 학년, 성적, 입학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과선택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서 과를 선택하는 것이 학교성적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과 전공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등[18]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성격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김[30], 김 등[31], 최 등[32]의 연구에서는 성격에 따라 전공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이 전공만족도와와의 관련성에서 윤리성향은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모두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윤리성향과 전공만족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성향은 자신의 직무행동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천 등[33]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개인이 속한 조직이 윤리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지할수록 더욱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직무만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34], 조직의 윤리

적 환경이 직무만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속한 조직이 윤리적이라고 믿는 것이 직무만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듯이[35] 전공만족도를 위해서 체계적인 윤리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와의 관련성은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모두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김 등[36], 강[37]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과 전공만족도와의 관련성은 교과만족, 수업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에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백 등[38]의 연구에서도 업무만족도와 진로방향만족의 상관계수 값이 높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손 등[39]은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무례함이 많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밝혀져 긍정적인 임상실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53%이었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등[31], 신 [40]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정 등[41], 박 등[42]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치위생과 학생들의 결과로 일반화하기는 한계점이 있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성향, 자아존중감, 임상실습 만족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전공만족 관련 요인 분석은 향후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가치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전공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치위생 교육 및 직무와 연계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 Y. Jung & G. I. Jung. (2012).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4), 37-48.
- [2] Schlenker BR & Forsyth DR. (1977). On the ethics of psychological research. *J Exp Soc Psychol*, 13(4), 369-396.
DOI:10.1016/0022-1031(77)90006-3
- [3] Forsyth DR. (1980).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 Pers Soc Psychol*, 39(1), 175-184.
DOI:10.1037/0022-3514.39.1.175
- [4] H. K. Lee & O. J. Ju. (2015).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thical type on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5(3), 497-504.
DOI:10.13065/jksdh.2015.15.03.497
- [5] J. S. Yu & S. Y. Choi. (2010). The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10(5), 307-314.
- [6] Y. J. Lee. (1999).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on learned helplessn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7] S. J. Lee & K. S. Han. (2012).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Ethical Propensity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2(5), 503-510.
- [8] M. S. Lee & K. M. Chae.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J Korean Cognitive Behavior Therapy*, 12(1), 63-75.
- [9] Murray SL, Holmes JG & Collins NL. (2006). Optimizing assurance: The risk regulation system in relationships. *J Psychological Bulletin*, 132(5), 641-66.
DOI:10.1037/0033-2909.132.5.641
- [10] Downey G, Freitas A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DOI:10.1037/0022-3514.75.2.545
- [11] S. P. Hong. (2008). Effects of social support level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11(2), 23-45.
- [12] H. S. Oh. (2013). Study on the teaching efficiency and satisfaction levels of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during clinical practice training for some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J Dent Hyg Sci*, 13(5), 777-786.
DOI:10.13065/jksdh.2013.13.05.777
- [13] G. H. Choi. (2016). Analysis of Employment Tendenci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Field(Clinical) Practice among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Optics. *Journal of*

-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4(4), 671-679.
DOI:10.15205/kschs.2016.12.31.671
- [14]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5] M. T. Tessema, K. Ready & W. W. Yu. (2012).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2), 34-44.
- [16] Y. J. Kim, Y. J. Jang, J. S. Kwag & S. N. Kim. (2005). Connected factors of ethical percep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5(1), 1-5.
- [17] J. R. Lee, H. J. Kim & H. J. Ko. (2014). The effects of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4(1), 39-47.
DOI:10.13065/jksdh.2014.14.01.39
- [18] K. H. Park & H. J. Choi. (2015).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5(2), 279-86.
DOI:10.13065/jksdh.2015.15.02.279
- [19] Y. I. Kim. (2014). *The effect of ethics position and self-esteem in dental hygiene students on their perception of pati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 [20] Y. S. Kim & Y. S. Kim. (2010). A study about the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training pla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34(4), 543-552.
- [21] Y. J. S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 [22] S. N. Lee & E. S. Kim. (2015).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8), 5304-5313.
DOI:10.5762/KAIS.2015.16.8.5304
- [23] Y. I. Kim, S. H. Kim & J. H. Jang. (2015). Influencing factors on perception of pati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5(4), 743-750.
DOI:10.13065/jksdh.2015.15.04.743
- [24] M. G. Ji. (2017). The effect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steem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4), 173-181.
- [25] J. Y. Kim. (2014).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4(4), 503-509.
DOI:10.13065/jksdh.2014.14.04.503
- [26] Y. K. Han & H. H. Kim. (2015).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5(4), 457-464.
DOI:10.17135/jdhs.2015.15.4.457
- [27] S. J. Mun, I. Y. Gu, H. Y. Choi & G. G. Hwan. (2014). Study of On- and Off-Campu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Some Regions. *J Korean Soc Dent Hyg*, 15(11), 6793-6803.
DOI:10.5762/KAIS.2014.15.11.6793
- [28] M. K. Jeong & J. Y. Lee. (2012).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2(6), 1241-1249.
DOI:10.13065/jksdh.2012.12.6.1241
- [29] G. O. Jung, G. Y. Choi & J. Y. Bae. (2013).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3(1), 61-68.
DOI:10.13065/jksdh.2013.13.1.061
- [30] M. Y. Kim. (2011).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 ethical propensity and ethical environment of organization on job satisfac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thical behavior*.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31] M. N. Kim, Y. M. Heo, H. J. Kim & Y. S. Ahn. (2015). Effect of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5(1), 81-89.
DOI:10.13065/jksdh.2015.15.01.81
- [32] M. S. Choi, Y. H. Jang & H. K. Yun. (2014).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self-efficiency on the satisfaction with maj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4(2), 155-162.
DOI:10.13065/jksdh.2014.14.02.155
- [33] S. H. Cheon, H. Y. Lee & M. S. Ch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calling and ethical inclination in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14(6), 813-820.
DOI:10.13065/jksdh.2014.14.06.813
- [34] C. P. Parker, B. B. Baltes & N. D. Christiansen. (1997).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justice perceptions, and work attitudes: A study of gender and racial-ethnic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3), 376-389.

DOI:10.1037/0021-9010.82.3.376

[35] S. Valentine, M. M. Greller & S. B. Richtermeyer. (2006). Employee job response as a function of ethical context and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9(5), 582-588.

DOI:10.1016/j.jbusres.2005.06.004

[36] J. H. Kim, S. H. Hong, C. H. Kim & S. H. Nam. (2011). A study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is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J Korean Soc Dent Hyg*, 11(6), 527-533.

[37] Y. S. Gang. (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3309.

DOI:10.5762/KAIS.2013.14.7.3301

[38] S. M. Baek, D. H. Song, J. S. Park, J. Y. Bae., W. S. Jeong & S. J. Hwang. (2013). Comparison of major and job satisfaction of students and graduates in dental hygiene and nursing. *J Dent Hyg Sci*, 13(4), 378-385.

[39] J. I. Son, E. B. Lee & J. H. Jang. (2016). Relationship between incivility through clinical exper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6(5), 701-708.

[40] M. A. Sin. (2013). Effect of volunteering, self-esteem and job-esteem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crete*, 13(11), 1024-1035.

DOI:10.5392/JKCA.2013.13.11.1024

[41] M. K. Jeong & J. Y. Lee.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linical practice among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12(6), 1241-1249.

DOI:10.13065/jksdh.2012.12.6.1241

[42] I. S. Park & S. H. Lee.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 Dent Hyg Sci*, 7(4), 295-302.

박 정 희(Jeong-Hee Park) [정회원]



▪ 1994년 8월 :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1993년 3월 ~ 현재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과방사선학, 보건통계학

▪ E-Mail : jhpark@masan.ac.kr

송 혜 정(Hye-Jeong Song) [정회원]



▪ 2004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구강보건학과 (구강보건학석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 관심분야 : 치과방사선학, 치면세마

▪ E-Mail : so2147@masan.ac.kr

이 보 영(Bo-Young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 (치의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과정 중

▪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통계학

▪ E-Mail : bonny31@oasis.inje.ac.kr